【 2019.3.7(목) 강원일보 】

"유관기관 수시 간담회 불합리 제도 개선"

오인철 건설협회 도회장 연임

제22대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에 오인철(63·사진) 현 회장이 연임됐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22대 도회장에 단독 출마한 오인철 현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기는 올 6월26일부터 2023년 6월까지다.

오인철 도회장은 홍천 출신으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주)태성종합건설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또 이날 도회 감사에도 김영수 태백(주)강원건설 대표가 연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6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오인철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박승선기자

오인철 회장은 "녹록지 않은 업계현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건설산업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부족한 건설공사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사들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회는 조만간 전형위원회를 갖고 부회장과 운영위원, 윤리의원, 대의원 등 제22대 도회 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윤종현기자

내년 국비확보 274개 사업 2조3천억 규모

최 지사 2차 전략회의 주재

도는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신설, 연구개발(R&D)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등을 올해 국비 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도는 6일 최문순 지사 주재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2차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별 업무계획과 연계한 국비 전략, 실국별 역점사업 발굴 및 대응전략 사회공헌 기금 확보 계획 등을 검토했다.

내년도 국비확보 대상은 274개 사업 2조3,276억원 규모다. 이 중 수소시범도시 사업, 동해 북평산업단지, 강릉 중소일반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속초 대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조성, 보훈회관 건립 등의 신규사업은 101개, 5,542억원 가량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지사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 중 SOC사업에서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신설을 1순위로 꼽았다. 최기영기자 answer07@

【 2019.3.7(목) 강원도민일보 】

오인철 건설협회 강원도회장 연임

1차 임시총회 만장일치 선임

"경험 바탕 업계권익 증진"

오인철(63·사진)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이 연임됐다. 오 회장은 6일 열린 2019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회장직을 맡는다.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3년 6월까지다.

지난 2015년 3월 처음 건설협회 도회장으로 뽑힌 오 회장은 현재 홍천 태성종합건설 대표,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오 회장은 "SOC 예산 축소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추대돼 연임하게 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관호

【 2019.3.7(목) 건설경제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연임 성공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

6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이날 강원도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22대 도회장으로 오인철 현 회장을 선출했다. 홍천 출신인 오인철 현 회장은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태성종합건설 대표,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도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한 간접공사비 적용 추진 △회원사 권익 신장 및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22대 도회 감사엔 김영수 강원건설 대표가 선출됐다.

오 회장은 "지난 4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더욱 일 잘하는 협회, 소통하는 협회, 회원이 우선인 협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